

제4회 세계지식포럼 연설

존경하는 장대환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에디트 크레송 전 프랑스 총리,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도널드 존스톤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회 세계지식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오신 전문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의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수평적 네트워크형 정치체제의 도입, 둘째, 경제·시장 개혁, 셋째, 노사문화의 혁신, 넷째로 지방화, 다섯째, 동북아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도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 평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구상과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화되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더디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IT와 정보화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화의 성과를 경제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가고,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나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권력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입니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정치체제 아래서는 지식경제가 요구하는 자율과 분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수평적 네트워크형 정치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어떤 권력기관도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각자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이미 끝났습니다. 언론과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협의·조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평적 네트워크형 정치체제로 가는 기본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화의 물꼬를 트고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시장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부실을 상당히 제거했습니다. 선진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부실요인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질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편리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실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시장에서 판가름이 나고, 정도를 걷는 기업과 반칙을 일삼는 기업이 가려져서 각각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경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해서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권력문화를 바꾸고 시장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토양을 바로 다지는 일입니다. 그 기틀 위에서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투입주도형 성장단계에서 혁신과 창의력이 주도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기술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그동안 기술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이미 세계 여덟번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술수준과 기술개발의 생산성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을 선정해서 기초연구 개발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10대 성장동력산업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 것도 그러한 의지의 반영입니다. 지금 민·관 합동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해서 기술혁신에 주력하는 기업에 더 많은 연구개발 혜택이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술혁신의 결과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력이 기술혁신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러나 높은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을 적절히 배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와 자율, 그리고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공계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지방산업의 발전과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자리에서 신뢰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첫번째 이유로서 노사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경쟁력 향상도, 2만 달러 시대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습니다.

저는 불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반드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개혁방안

이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현과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연내에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개혁안을 토대로 정부가 주도하여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를 해마다 절반씩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취임 직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이 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개방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적극적인 개방으로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을 수 있는 것도 20년 정도 먼저 개방정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기술과 생산성 우위를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개방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도 결국은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또한 과감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WTO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FTA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칠레 FTA의 비준을 위해서 노력하고, 싱가포르·일본과의 FTA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방과 더불어 외국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입

지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자상담에서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 사람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국인 학교와 주거·의료시설 확충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미 출범한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연내 지정될 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기에 급급해서 단기부양책을 쓰게 되면 장기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회복된 경기가 지속적으로 힘차게 비상하고 오랫동안 호황을 지속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보여 준 저력과 놀라운 성과가 확신의 근거입니다. 과거 외환위기가 우리의 각성과 체질 전환 노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 경제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힘찬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창의력과 첨단기술로 무장한 기업과 근로자,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가 함께 이끌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그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